

'문화공유도시, 군산' 출항 준비 완료

군산시, 예비문화도시 선정... 문체부,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대상지에 11개 도시 지정

군산이 21세기 문화를 선도하고 구석구석 문화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문화공유도시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정하는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체 49곳과 경합을 벌여 총 11개 도시가 선정되는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4차 문화도시에는 총 49개 도시가 지정을 신청, 1차 서면인터뷰에서 군산시를 비롯해 30개 도시가 통과했으며 9월 현장경도, 11월 17~19일 최종발표회를 거쳐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군산을 포함 11개 도시가 발표됐다.

군산은 그동안 (예비)문화도시에 도전하기 위해 시민회의진행자양성과정(2~3월), 시민설문조사(4~5월, 1천여명), 시민조사단(4~5월), 시민원탁(5~6월), 문화발상(10~11월), 문화도시포럼(5월, 11월) 등을 통해 꾸준히 시민의견수집과 전문가의견을 수렴, 조성계획서를 완성했다.

군산은 27개 읍면동 골고루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도시 전체를, 시민 전체를 문화도시 주제로 설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4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출범, 9월 군산문화공유센터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과(동네문화카페 연계), 농업축산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연계), 도시재생과(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일자리정책과(청년,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등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와 20여 개 중간지원조직·대학·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문화도시지원네트워크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또 2022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군산문화재단 설립을 앞당기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가 등이 문화도시에 핵심역량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견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문화도시에 선정되는 도시들의 공통점이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전문 출연 기관을 보유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등 문화생태계가 안정적인 도시들이기 때문이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이번 달에도 예비문화도시 시범사업 지역인 신흥동, 옥산면에서 문화발상을 이어가고 2022년 1월부터 군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

산문화공유대학 수강생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시작한다.

1년간 추진하는 예비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이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참여 공감대 확보를 통해 시민공동체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협의체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협력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 또는 문화도시를 위해 어떤 협업을 할 것인가?'는 주제로 예술가, 여성, 청년, 노인, 다문화, 청소년 등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시민원탁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문화도시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내 삶을, 우리 동네를 바꿔보려는 시민들이 등장하고 그 시민들이 공동체로 모여져 서로 손 잡을 때 문화공유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군산시는 시민들이 잡은 손 놓지 않도록 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네트워크를 구성,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어 갈 때까지 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삶을 문화적으로 보듬을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제일 기쁘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군산이 많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산업침체로 인한 위기 지역으로만

인식될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 문화적 삶을 향유하는 문화공유도시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놓게 되어 기쁘다"며 "군산이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국비 100억, 시도비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 류보선 위원장도 "일상 모습,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슬로건으로 내건 군산시가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곧, 군산 구석구석에 문화적 에너지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물론 그 에너지들을 교차시켜 더욱더 승화된 문화를 만들어 낼 잠재성이 무궁무진함을 널리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예비문화도시 선정으로 군산 전체가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것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도시, 그러니까 '문화의 명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2일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로 전북 군산시를 비롯 울산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부산 북구, 경기 군포시, 경기 의정부시,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남 담양군 등 총 11곳을 지정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이팝프렌즈 예술상' 첫 수상자 선정

전주문화재단, 예술인상 윤철규·김재원·윤미류 씨
기획자상 박근영 씨에 상금 각 300만원 수여

전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이팝프렌즈 후원회가 주관하는 '2021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자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2021 이팝프렌즈 예술상'은 올해 5월 전주문화재단 후원회로 발족된 '이팝프렌즈'에서 어려운 예술현장에서 창작을 이어나가는 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전주시민과 예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총 26명이 추천, 후원운영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술인상 3명, 기획자상 1명을 최종 선정했다.

예술인상에는 윤철규(중진-시각), 김재원(중진-공연), 윤미류(유망-시각) 씨가 선정

됐다. 기획자상에는 박근영(뮤지컬수업퍼니)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들에게는 상금 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이팝프렌즈 나춘균 회장은 "이번 '2021 이팝프렌즈 예술상'의 첫 수상자가 결정돼 감회가 크다"며, "후원을 해준 항토기업인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올해 첫 수상자는 전업작가로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창작활동을 해 온 작가를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술상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6시 30분 팔복예술공간 카페세너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작고 문학인 추념 세미나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 11일 이광웅·이연주·최명희 작가 조명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전라북도 작고 문학인을 추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최명희 소설가의 작고 날짜에 맞춰 여는 이 세미나는 연구자들에게 전라북도 출신 문학인의 너르고 깊은 문학 세계를 듣고 전북 문학의 힘을 다시 살피는 소중한 시간이다. 올해 주목할 문학인은 최명희 소설가와 이광웅·이연주 시인이다.

군산 출신인 이광웅·이연주 시인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시로 형상화했다.

이에 따르면 이광웅 시인은 정치 권력과의 충돌을 온몸으로 겪어낸 시를 남겼고, 이연주 시인은 당대의 부정하고 부패한 현상을 신체의 병리적 증상으로 해석했다.

이런 점은 최명희 작가가 무너져가는 조선 후기의 사회문리를 소설 '혼불'에 눈썰미 있게 담아낸 것과 무척 닮았다.

이광웅·이연주·최명희 세 작가 모두 극적인 변화의 역사적 시간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역사적 순간이 최고조로 끓어올랐던 할나를 문학의 언어로 담아낸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문학 자산이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문학박사 김병용 씨가, 토론은 문학박사 장운준·윤수하 씨가 맡아 연구에 힘을 보탠다.



최명희 소설가, 이광웅 시인, 이연주 시인

또한, 세미나에 앞서 동화작가 김근혜 씨가 '소설 '혼불' 속 이야기로 동화 만들기'를 주제로 사례발표와 영상 시연을 한다.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관장은 "작고문학인 세미나는 학술적으로 작가와 작품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최명희·이광웅·이연주 세 문학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삶과 작품을 기억하는 의미가 크다"면서 "더 많은 학자의 본격적인 학술연구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고 문학인을 추념하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의 작고 문학인세미나는 문학인과 연구자 스스로 서로를 보듬고 다독이고 격려하며 상처를 쓰다듬는 여정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전 신청한 연구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연극 '침부과일-서식01-이력서' 4일 공연

'배우다컴퍼니'의 연극 '침부과일-서식01-이력서'가 4일 전주한벽공영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전주문화재단 전주한벽문화관 2021년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오후 3시와 7시30분 총 2회 진행된다고 밝혔다.

연극 '침부과일-서식01-이력서'는 작품명이 눈에 띄는데, 지역 예술인 4명이 대본, 연출 등 동공 제작한 작품으로 예술가의 생존기회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는 창작극이다. 단 몇 줄의 스펙으로 각자의 삶을 온전히 증명해야 하는 잔인한 '이력서' 한 장이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통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 3만원이며, 예술인 50%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가 마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에서 확인 및 예매 가능하다. 공연문의는 전주문화재단 콘텐츠사업팀(063-280-704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제6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5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